

도-도의회, 전통시장서 민생경제 현안 청취

남부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 갖고 상생협력 약속

전북도가 16일 전주시 관내 9개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장단과 함께 전주 남부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생 및 혁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상점가 간 상생·협력하는 지역 상권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상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도와 시가 더불어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성철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 김희수·이병도·강동화 도의원, 이영숙 전주시 민생경제과장, 김원주·이국·전윤미 시의원, 심성욱 전주시 상인연합회 회장(서부시장·상점가)을

비롯한 상인회장단 9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을 통해 2024년 전통시장 지원 운영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전주시 상인연합회건의·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전주시 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의 발전 방법은 상인들의 자구적인 개선을 위해 상인조직을 활성화하고 유통환경과 소비 흐름에 발맞추어 전통시장이 변화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내 전통시장 전반에 행정기관을 비롯한 기업, 관련 단체와 상생 협력해 전국적 문화관광 특화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희수 도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전통시장 상인회 간 결속력 강화를 다지고 민관이 협력해 지역상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변화하는 경제 흐름에서 전북의 유구한 전통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상인 간, 상인회와 행정, 의회 간 소통이 오늘처럼 활발히 추진되어 모두가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해 뿌리 깊은 상권으로 내달린 소원한다"고 당부했다. 문성철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전북도는 지역상권 특화육성 사업, 전통시장 시설·경영 환경 개선사업, 상인 경영부담 완화 사업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지원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사람과 함

께하는 특별한 기회, 전북상권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더욱 상인회와 소통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상인연합회는 서부시장·상점가, 남부시장, 신중앙시장, 모래내시장, 풍남문상점가, 중앙상가, 전자상가, 전복대상점가, 동문상점가로 구성된 상인조직으로 올해부터 총회를 확대 운영해 시장별 순회하여 지역 의원과 유관기관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상인조직 혁신역량 강화, 지역자원 특화상권 발굴 등을 역점 지원 방향으로 발표하고 올해부터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주시가 16일 도내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던 동서콘트롤(주)과 ㈜세우테크원을 방문했다.

도, 중기 환경개선 사업장 현장간담회

서남이 도의원, 동서콘트롤 등 찾아 애로사항 청취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주시가 16일 도내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던 동서콘트롤(주)(회장 최광주)과 (주)세우테크원(대표 손진환)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장을 찾아 사업 만족도 및 추가적인 지원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서콘트롤(주)은 지난해 작업장 배기시설 및 냉난방기 설치 지원을 받았고, (주)세우테크원은 근로자 휴게실 개보수를 지원받아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42억원 내외로 지원해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복지편익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만들고 나아가 고용 창출과 장기근속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서남이 도의원은 "직접 환경개선 사

업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과정, 개선 후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좀 더 좋은 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면서 "노후된 시설 개보수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희욱 전북도 기업애로해소단장은 "도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근로자 통근버스·기숙사 지원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콘트롤(주)은 1997년 설립해 자동차·상용차, 건설기계, 농기계, 엔진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 2019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내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활발한 기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주)세우테크원은 2001년 전주에 설립되어 사출성형기 제어관벨, 수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 2017년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완료

시·공간 제약 없고 폭넓은 형태 민간 참여자 회의 지원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과정서도 효과 '특목'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특별하고', '스마트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로써 보다 폭넓고 다양한 형태의 영상회의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와 학계 등 민간 참여자들의 원격 참여가 가능해져 회의 참여 및 진행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영상회의시스템은 주로 중앙부처와 지방 행정기관 간 회의에 국한됐으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고도화된 영상회의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

고, 보다 다양한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영상회의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새로운 영상회의시스템은 일반회의 뿐만 아니라 행정망 영상회의와 전시재난 영상회의, 민관협업 영상회의, 온·오프 영상회의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회의 지원이 가능하다. PC 및 모바일에서도 참여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통합 제어 및 예약관리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됐다. 일례로 최근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유치를 위해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새로운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새로운 도약의 의미와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영상회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축된 영상회의시스템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집단 지성을 모으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사결정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높여 영상기반의 민·관 협업 소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올해 14개 시군 정기본 등록면허세 27만건 70억원 부과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에서 2024년 정기본 등록면허세(병합분) 27만여건, 7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부과 건수는 6천여건(2.4%), 세액은 4억2,000만원(6.3%)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증설, 통신판매업 증가,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50% 감면 종료, 전기사업허가(태양광) 시설 설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전주시 28억1,000만원, 익산시 8억원, 군산시 7억7,000만원, 정읍시 2억1,000만원 등이다. 정기본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한다.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만8,000원~6만7,500원, 기타 시·군 중 동지역은 7,500원~4만5,000원, 읍·면지역은 4,500원~2만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및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회승 전북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재산압류 및 인·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외식업 활성화 위해 다양한 지원책 펼친다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지원으로 700여개 업체에 혜택

전북도가 올해 외식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패키지 사업은 외식업체의 식재료 구매 및 조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우수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조성 사업'과 외식업체 희망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올해 2개 사업에 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은 외식업체 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외식 관련 법인·조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대비 등 제반 비용 지원을 통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활용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주시와 고창군이 선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은 일반·휴게음식점에 경영관리, 마케팅관리, 메뉴개발, 푸드테크 도입

등 희망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완주군이 선점 계약 4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한다. 본 패키지 사업을 통해 도내 외식업체가 건강한 지역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빠르게 변화하는 외식트렌드에 맞춰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더 많은 외식업체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을 통해 1월 26일까지 추가 수요를 조사하고 있어 사업 지원대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자치도 성공 출범 위한 행사장민·관 합동안전점검

전북도가 128년의 역사를 새기고 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로 대전환해 비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행사'에 대한 민·관 합동안전점검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과 도청 야외광장에서 16일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을 위해 도와 전주시를 비롯해 경찰·소방·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참여했다. 먼저, 출범식이 열리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 안전점검은 출범식 행사장 무대 구조물, 전기·가스·소방

설비 등의 시설물과 관람객 안전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출범식과 전야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 인파밀집 완화를 위한 조치와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출범식과 전야제 동안 행사 종료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현장 상황유지를 할 예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